

# KIA, 나성범 영입 발표? 양현종 협상에 '일단 멈춤'

후끈 달아오른 FA 시장, 박건우 NC·박해민 LG 유니폼 가장 뜨거운 KIA, 양현종과 협상 이견 못 좁혀 발표 미뤄

잠정하던 FA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4일 FA 계약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던 박해민과 박건우의 행선지가 결정됐다.

삼성 외야를 지켰던 박해민은 4년 총액 60억원에 LG 유니폼을 입고 잠살에 서게 됐고, 두산을 대표했던 외야수 박건우는 6년 총액 100억원에 NC로 간다.

지난달 27일 한화 잔류가 결정된 최재훈에 이어 마침내 외부 FA의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 화제의 팀인 KIA는 이날 오전 코칭스태프 개편을 알린 뒤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나오지 못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어' 나성범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KIA가 가장 먼저 외부 FA 영입 스타트를 끊는 것 같았지만, 양현종과의 협상이 변수가 됐다.

앞서 서로 조건을 주고받았던 KIA와 양현종 측은 14일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KIA의 FA 움직임이 '일단 멈춤' 상태가 됐다.

'상징성'과 '현실'의 격차가 있다.

양현종은 2007년 입단해 지난해까지 선발로 14시즌을 뛰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타이거즈 에이스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앞으로 4년을 위한 계약인 만큼 '현실' 부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현종은 올 시즌 '빅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이뤘지만 만족할 만한 성적은 만들지 못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12경기에서 35.1이닝을 소화한 양현종은 승리 없이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기록했다. 9개의 피홈런도 남았다.

마이너리그에서도 10경기(45이닝)에 나왔지만 역시 승리 없이 3패만 더해졌다. 10개 홈런을 맞으면서 마이너리그 평균자책점도 5.60에 그쳤다.

냉정한 현실을 경험하고 KBO에 복귀하게 된 양현종에게 내년 시즌 35살이라는 나이도 불리한 '현실'이 됐다.

결국 신중하게 현실을 고려한 KIA와 상징성을 강조하는 양현종 측은 '보장액'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번의 FA 협상도 수월하지는 않았었다. 양현종은 지난 2016년 처음 FA 자격을 취득했다. 2014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을 통해 해외 진출을 타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양현종은 FA 신분이 되자 다시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KIA는 양현종의 확고한 해외 진출 의사에 맞춰 플랜 B를 짜다. 최형우를 영입해 막강 타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 '100억'을 배팅해 최형우를 영입하면서 우승 밑바탕을 그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해외 시장 분위기가 뜨겁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양현종의 KBO리그 유턴이 이뤄졌다.

팀을 대표하는 타자 나지완의 FA 계약까지 마무리됐던 만큼 예산 문제에 부착한 KIA는 결국 '단년 계약'이라는 묘수를 썼다. 계약 연수 상관없이 해외 진출 문도 열어주면서 에이스 대우를 해줬다.

해외 진출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쉽게 단년 계약 형태가 됐지만 양현종도 옵션을 더해 120억 이상을 챙기면서, 에이스의 실력을 보여줬다.

2020시즌이 끝난 뒤 꾸러진 두 번째 FA 협상 테이블에서도 '해외 진출'이 키워드였다.

예리함이 떨어졌던 성적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렸던 만큼 KIA는 양현종의 잔류를 기대했다. 양현종도 해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조건부 잔류'를 이야기하면서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답을 약속했던 시점을 넘겨서도 확실한 '러브콜'을 받지 못한 양현종은 다시 한번 KIA에 10일의 시간을 요청했다.

오매불망 양현종의 선택을 기다렸던 KIA는 결국 스프링캠프 시작을 앞둔 1월 30일 양현종과의 FA 협상 종료로 선언했다. 그리고 양현종은 2월 13일 스프링캠프 초청선수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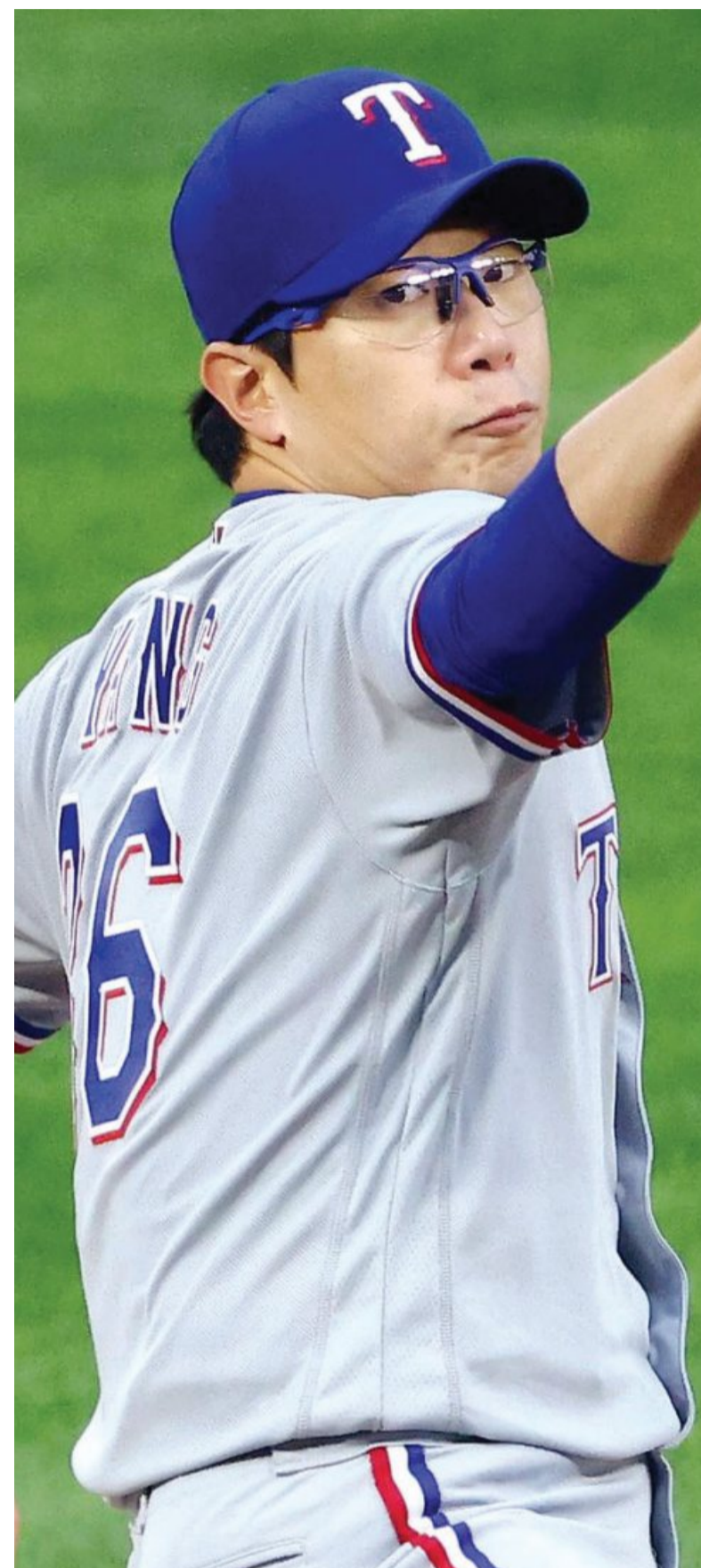
KIA는 이번 겨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아쉬움 속에 KBO로 복귀한 양현종과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서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양현종과의 협상 전개 상황,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나성범의 영입 발표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KIA는 스토브리그의 가장 뜨거운 구단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



양현종

## KIA 타이거즈 수석코치에 진갑용

- 코칭스태프 보직 확정
- 타격코치 최희섭·이범호
- 투수코치 서재용·곽정철
- 수비코치 김민우·이현곤
- 작전·주루코치 조재영
- 배터리 코치 김상훈
- 퓨처스 감독에 정명원



2022시즌 김중국 감독과 1군을 이끌게 된 진갑용 수석코치.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가 김중국 감독과 진갑용 수석코치 체제로 2022시즌을 맞는다.

KIA가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1군은 김중국 감독을 중심으로 진갑용 수석코치와 함께 최희섭·이범호 타격코치, 서재용·곽정철 투수코치, 김민우·이현곤 수비코치, 조재영 작전·주루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올 시즌 포수 지도를 담당했던 진갑용 코치가 수석 코치가 됐고, 그 자리는 김상훈 코치가 맡는다. 퓨처스 총괄코치를 했던 이범호 코치는 1군에서 최희섭 코치와 타격을 지도하게 됐다.

역시 퓨처스에서 유망주 육성을 담당했던 서재용 코치가 1군에서 투수 메인 코치를 담당한다.

올 시즌 총괄코치 체제로 운영됐던 퓨처스 선수단은 정명원 감독이 이끌게 된다.

또 송지만·홍세안·윤해진 타격코치, 류택현·이상화·강현민 투수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나주환 작전·주루 코치, 강성우 배터리 코치가 퓨처스 선수단을 지도한다.

KIA는 "진갑용 코치가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고, 감독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선수단에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석코치에 임명했다"며 "연료와 풍부한 육성 노하우를 지닌 정명원 코치는 퓨처스팀 감독을 맡아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전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IA는 1년 만에 다시 1군·퓨처스 운영 체계를 원점으로 돌렸다.

KIA는 2020시즌이 끝난 뒤 '육성'을 언급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이 1군과 퓨처스 선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바꿨다.

앤서니 코치에게 '메신저' 역할을 맡겨 1군과 퓨처스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맞춰 퓨처스 감독제를 폐지하고,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했다. 이범호 코치를 총괄코치에 앉히는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하지만 KBO리그 2년 차 윌리엄스 감독은 9위라는 성적에 그쳤고, 우려의 시선 속에 진행됐던 1·2군 통합 운영은 조계현 단장·윌리엄스 감독의 동반 퇴진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한 KIA는 2022시즌부터 1군은 김중국 감독을 중심으로 '성적'에 집중하도록 하고, 퓨처스팀은 단장 관리 속에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바르셀로나 골잡이 아케로, 심장 문제로 은퇴할 듯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베테랑 골잡이 세르히오 아케로(33)가 심장 문제 탓에 결국 현역 생활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마르카와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아케로가 15일(현지시간) 은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케로는 10월 말 알라베스와의 2021-2022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가 전반전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이후 그는 부정맥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라베스전 이후 바르셀로나는 3개월 동안 아케로를 경기에서 내보내지 않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복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가운데 은퇴 예정 보도가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바르셀로나는 답변을 거부했고, 선수의 에이전트와 측근에게서도 관련 정보를 확

인할 수 없었다"며 사정에 밝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구단이 은퇴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케로는 아르헨티나 클럽 인디펜디엔테에서 유스팀을 거쳐 15세이던 2003년 1군 무대에 데뷔했고, 2006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해 유럽으로 진출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시즌을 보내고 이적한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서는 통산 공식전 390경기에 출전해 260골(74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5회를 포함한 총 15번의 우승을 이끌어 전성기를 누렸다.

맨시티 구단 사상 최다 득점 및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최다 득점 기록을 그가 보유했다.

지난 시즌으로 맨시티와 계약이 끝난 뒤 아케로는 6월 바르셀로나와 2년 계약을 맺고 새 등지를 뒀으나 시즌 초반엔 중아리 부상으로 두 달 정도 결장했다.

/연합뉴스

## NBA 스테픈 커리, 역대 최다 3점 슈트 2973개 -1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33)가 미국프로농구(NBA) 역대 최다 3점 슈트 기록을 눈앞에 뒀다.

커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게인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3점 슈트 5개를 포함해 26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의 활약을 펼쳐 팀의 102-100 승리에 앞장섰다.

특히 커리는 개인 통산 3점 슈트 성공 수를 2972개로 늘려 현재 역대 최다 기록보유자인 레이 앨런의 2973개에 단 하나 차로 다가섰다.

앨런과 타이거 기록에는 3점 슈트 1개, 앨런을 넘어선 신기록에는 2개가 남은 것이다.

2009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에 지명된 커리는 13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앨런은 18시즌 동안 1300경기를 뛰며 2973개를 넣었는데, 커리는 이날이 788번째 경기라 앨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번 시즌 커리가 경기당 5개 넘는 3점 슈트를 넣고 있고, 출전해서 하나도 넣지 않은 날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일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앨런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새로운 기록을 작성할 공산이 크다.

커리의 활약 속에 골든스테이트는 4쿼터 막판 역전극으로 연패를 피하며 22승 5패를 쌓아 서부 콘퍼런스 단독 1위가 됐다.

/연합뉴스